

보도자료

2023년 9월 25일 인천 2023-45호
이 자료는 9월 26(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5일(월) 12:00부터 취급 가능

제목 : 2023년 3/4분기 중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경제 보고서(2023.9월호)』 발간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3년 3/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보합** 수준

— 제조업은 석유화학·정제 등을 중심으로 보합세를 나타내었고, 서비스업은 운수업 등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한편 **한국은행(본부)**은 15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7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지역경제보고서(2023.9월호)***」를 **발간**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

○ 2023년 3/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보합세를 보이고 서비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상기 보고서에는 **현장리포트** “최근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수출 동향”도 **수록**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2. 현장리포트(“최근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수출 동향”) 1부.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김규식 과장, 홍창덕 조사역

Tel: 032-880-0032, 0034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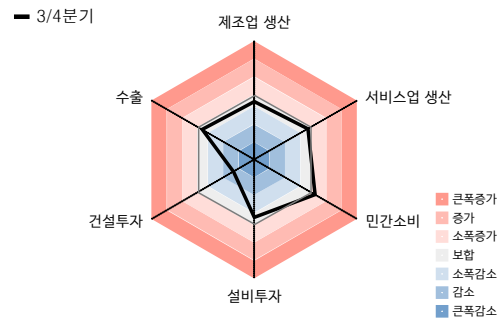
(1) 개 황

인천지역 경기 보합

2023년 3/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수요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감소하였다.

7~8월 중 취업자수는 2/4분기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보합세이고,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 전환하였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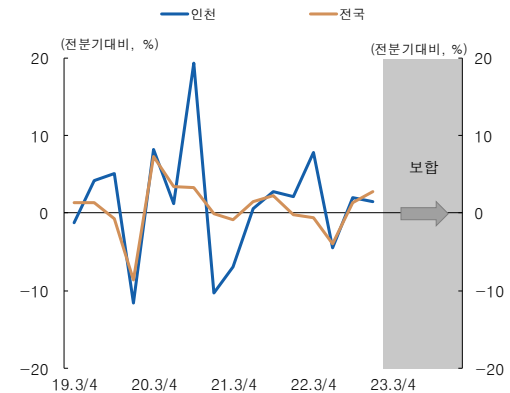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목재·나무는 증가한 반면, 식료품 및 기계·장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정제 등 나머지 업종들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수주 증가 영향으로 생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목재·나무는 산업내 경쟁 완화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는 국내 건설 시장 및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철강은 판재류(후판)의 전망산업인 조선업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전체적

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건설 경기 침체 영향이 지속되고 중국산 제품 유입 확대가 우려되나 조선업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약품은 관계기업과의 합병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료품도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정제는 경기 연착륙 기대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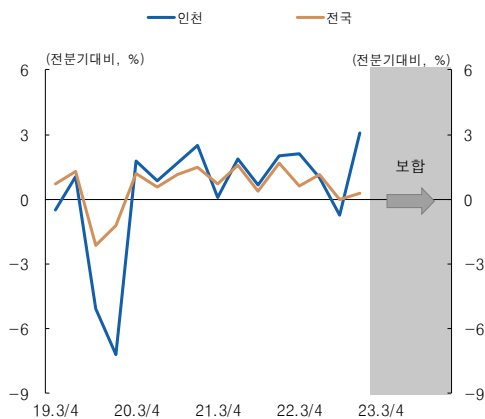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 보합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감소, 운수업은 보합세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백화점 매출이 야외활동 증가 등에 따른 레저·스포츠 상품 판매 증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증가로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엔데믹 이후 크게 성장했던 기저효과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한편 운수업은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증가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도소매업의 매출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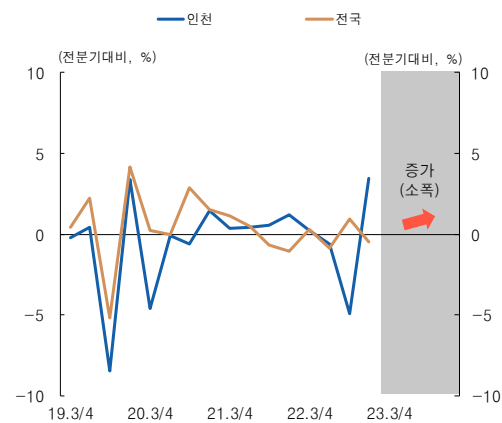
1) 인천공항의 2023년 7~8월 중 운항편수는 30,984편, 여객은 533.9만명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00.1%, 189.4% 증가하여 2023년 2/4분기 월평균(+127.6%, +358.0%)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증가

3/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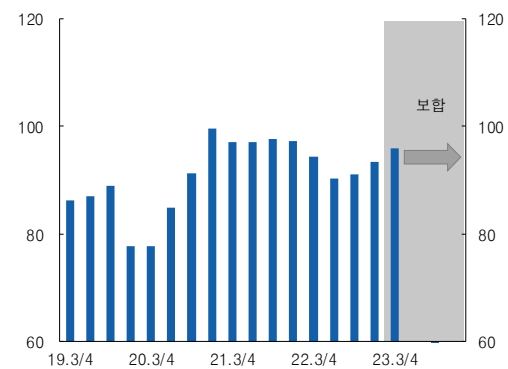
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²⁾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재화 소비의 경우 내구재와 준내구재는 각각 자동차 판매, 의복을 중심으로, 비내구재는 음료·식품 및 연료 판매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포함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포함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기계·장비는 중국 경기 및 국내 부동산시장 둔화가 예상되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상반기에 이어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그 외 석유화학·정제, 철강,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 및 장비는 신규투자를 최소화하는 와중에 신제품 및 기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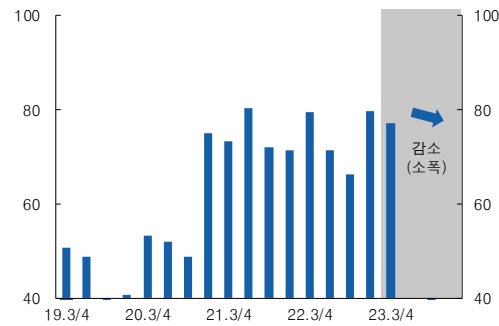
2)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7~8월 평균 99.3으로 2023년 2/4분기 평균 95.2에 비해 4.1p 상승하였다.

품 자동화 설비 투자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은 백화점의 점포 리모델링 완료를 앞두고 있어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정제는 전년동기 대정비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던 설비투자의 기저효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타 업종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3/4분기 중 건설투자는 2/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의 경우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건물 착공면적이 모두 감소³⁾하였으며, 토목도 감소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업황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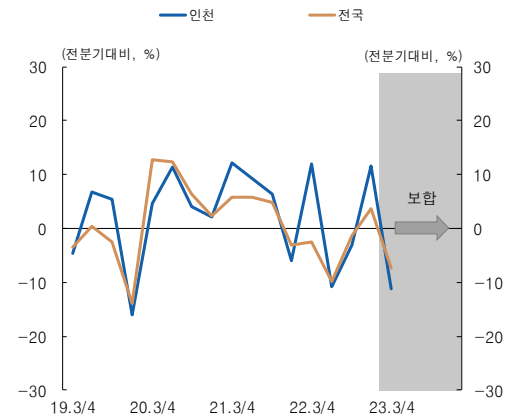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3/4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미분양 물량은 줄었으나⁵⁾, 건설수주액이 감소⁶⁾함에 따라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보험

3/4분기 중 수출(일평균⁷⁾)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판, 의약품 등의 수출이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일평균 수출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수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⁸⁾하였다. 자동차는 미국으로의 신차

- 3) 7월 중 인천지역 건물 착공면적은 2/4분기(월평균)대비 72.2% 감소하였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93.40%), 주거용(-76.6%), 상업용(-73.0%)은 감소하였다.
- 4) 7월 중 인천지역 토목건설 건설수주액은 2/4분기(월평균)대비 92.1% 감소하였다.
- 5) 7월 중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은 1,212호로 2/4분기(월평균) 2,640호에 비해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 6) 7월 중 인천지역 건설수주액은 2/4분기(월평균)대비 90.3% 감소하였다.
- 7) 7~8월 중 인천지역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판, 의약품(농약 포함), 무선통신기기로 일평균 수출 기준 2/4분기대비 반도체(-0.7%), 자동차(-24.6%), 철강판(-13.5%), 의약품(-35.8%) 수출은 감소하고, 무선통신기기(44.9%) 수출은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8) 8월 기준 인천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대중국 수출은 64.3%를 차지하며, 7~8월 중 인천지역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2/4분기 대비 일평

수출⁹⁾이 감소 전환하였다. 의약품은 백신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출감소로 감소 전환하였다. 철강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단가의 하락보다는 수출중량¹⁰⁾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부품¹¹⁾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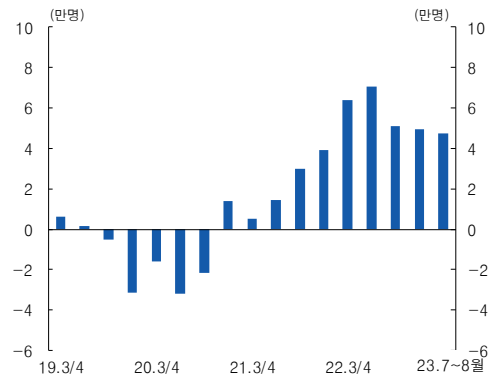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화학·정제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의약품, 식료품, 기계 및 장비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철강 등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7~8월 기준)

7~8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4.7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2/4분기(월평균 4.9만명 증가) 대비 축소되었다. 업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0.9만명 → 0.5만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4만명 → 1.5만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5.4만명 → 4.4만명)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1.1만명 → -1.7만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2.6만명 → 1.1만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임금근로자(2.3만명 → 3.6만명)는 증가하였다.

취업자수 증가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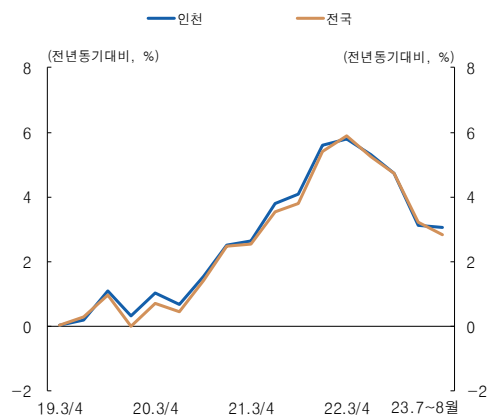
균 기준 5.5%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9) 7~8월 중 인천지역 신차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2/4분기 대비 32.3%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0) 7-8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 수출중량은 2/4분기에 비해 5.9%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2.2%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1) 7-8월 중 인천지역 무선통신기기 부품의 일평균 수출 기준 2/4분기 대비 56.0%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세 보합(7~8월 기준)

7~8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여 2/4분기(3.1%)와 동일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24.8% → 20.8%)의 상승률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상품(2.8% → 3.0%)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비스(3.4% → 3.1%)는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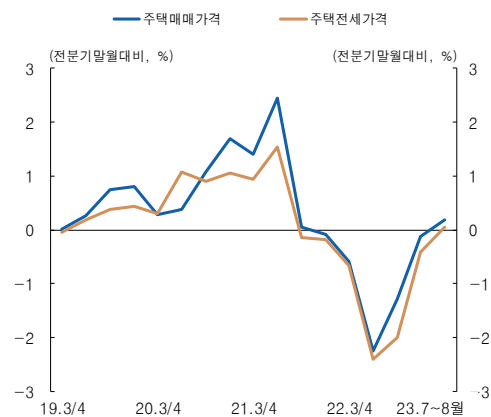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반전 (7~8월 기준)

7~8월 중 주택매매가격¹²⁾은 전분기말월대비 0.36% 상승하면서 2/4분기(-0.35%) 대비 상승 반전되었다. 주택전세가격¹³⁾도 전분기말월대비 7~8월 중 0.10% 상승하며 2/4분기(-1.26%)에 비해 상승 반전되었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연수구(1.59%), 중구(1.48%), 남동구(0.65%) 등 주요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상승폭이 컸으나, 미추홀구(-0.38%), 동구(-0.34%) 등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하였다. 지역별 주택전세가격도 혼조세를 보였다. 중구(3.51%), 연수구(0.43%)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미추홀구(-1.08%), 계양구(-0.32%), 동구(-0.28%) 등은 구축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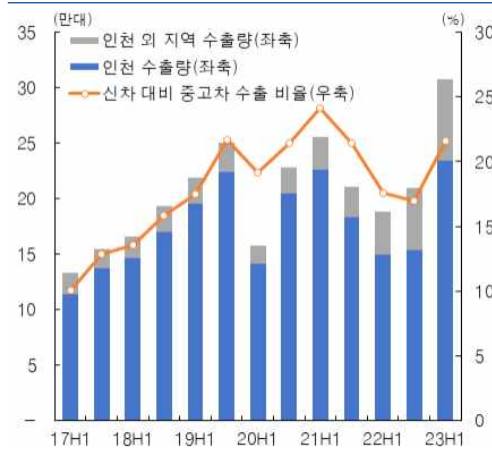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12) 7~8월 중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0.36%)의 절댓값은 전국(0.18%) 보다는 크고 수도권(0.4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7~8월 중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 변동률(0.10%)은 전국(0.18%) 및 수도권(0.45%)보다 절댓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수출 동향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대수는 30만 8,003대¹⁴⁾로 전년동기대비 63.2% 급증하였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 올해 수출 대수는 역대 최다였던 2019년의 실적(46만 9,405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고자동차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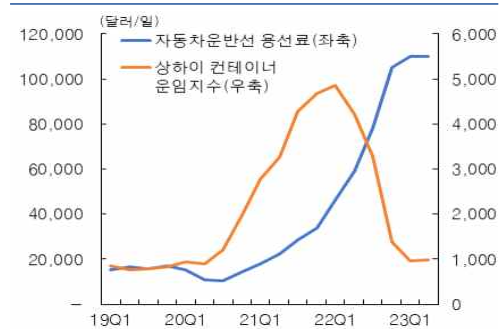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은 대부분 인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은 풍부한 수도권 공급물량과 함께 접근이 용이한 항만이 있어서 전국 중고차 수출물동량의 80~90%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23만 4,614대로 전년동기대비 56.9%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수출중 중고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에서 2022년 2.9%로 상승¹⁵⁾하는 등 중고차 수출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중고차 수출 증가의 배경으로는 먼저 컨테이너선 운임 비용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 기간중 글로벌 해운사들이 대거 발주한 컨테이너선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수요측면에서는 미국의 긴축정책과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물동량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중고차 수출 방식에 있어 중고차를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컨테이너선에 선적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중고차는 특수선의 종류인 자동차운반선(Pure Car & Truck Carrier; PCTC)에 주로 선적하여 수출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용선료가 급등하여 중고차 수출기업의 부담이 컸다. 특히, 작년부터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고 지역봉쇄로 중단됐던 중국 자동차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서 2020년말 1만 7,000달러였던 일 용선료가 올해 2분기 말에는 667.4% 증가한 1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동차운반선 대신 저렴한 컨테이너선에 선적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올해 상반기중 18만 3,750대로 전체의 78.4%에 달했다.

선적 종류별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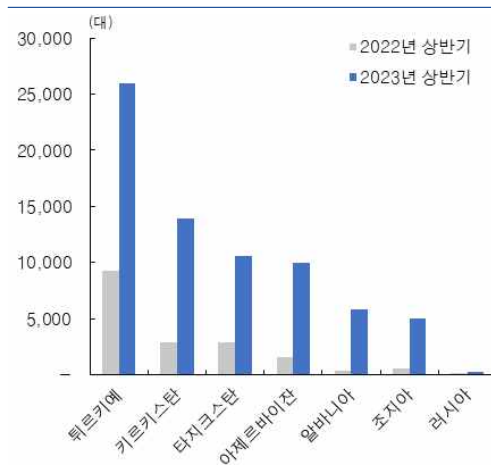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한국무역협회

1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내 중고차 HS 코드를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15) 인천지역 중고차 수출액은 2012년 3.6억 달러에서 2022년 15.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내 중고차 수요 증가에 따른 우회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러-우 전쟁에 따른 외국 완성차 업체들의 러시아 공장 가동 중지 및 서방의 대(對) 러시아 자동차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러시아 내 신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다¹⁶⁾. 이로 인해 러시아 내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며 러시아 우회 수출 통로로 사용되는 인접 국가로의 중고차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 인천항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튀르키예 2만 6,009대(+180.8%), 키르기스스탄 1만 3,898대(+384.3%), 타지키스탄 1만 598대(+270.4%), 아제르바이잔 9,918대(+549.1%) 등으로 러시아 인접국을 중심으로 급증하였다¹⁷⁾.

인천항의 러시아 및 인근 지역 중고차 수출량



자료 :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협회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동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까지 부분 완료를 목표로 인천 남항 약 40만㎡ 규모의 항만배후 부지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오토밸리’에는 중고차 2만 대 이상을 수용할 전시장을 비롯해 수출 상사 입주·지원 시설과 정비소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고차 수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 플랫폼이자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차량 관리에 따른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색, 비즈니스 여객·숙박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 인천지역의 경제 및 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조감도



자료: 인천항만공사

다만, 중고차 수출이 인천지역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나, 일본은 높은 기준의 자동차 검사제도 등 체계적인 중고차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해외 딜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¹⁸⁾. 중고차 산업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검사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6) 글로벌 자동차산업 정보 플랫폼 Marklines에 따르면, 러시아 내 신차 판매량은 2021년 157만 2,515대에서 2022년 62만 2,386대, 올해 상반기 28만 779대로 급락하였다.

17)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직접 수출되는 중고차는 주로 부산항에서 선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부산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액은 1.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인천항에서는 0.1억 달러에 불과했다.

18) KIET,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대기업 진출」(2022)